

##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이석주 개인전 《사유적 공간 Space | Contemplation》 개최

- 한국 극사실주의 1세대 작가 이석주의 3년 만의 개인전.
- 1970~90년대 <벽>, <일상> 시리즈부터 2018년 신작 <사유적 공간> 시리즈까지 45점 한자리에.
- 낡은 책 표지, 고전 영화 이미지 담은 <사유적 공간> 시리즈 200호~1000호 대형 회화 소개.



이석주, 사유적 공간, 2017, oil on canvas, 259x388 cm

전시 제목	이석주 : 사유적 공간 LEE Sukju : Space   Contemplation
전시 기간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 8월 12일 일요일
전시 장소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31120)
전시 작품	회화, 드로잉 45 점
관람 시간	서울 월요일 - 일요일 11:00 - 19:00 (백화점 휴점일 제외)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은 5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국 극사실회화 1세대 작가인 이석주(1952~ )의 개인전 《사유적 공간 Space I Contemplation》을 개최한다. 2015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이석주의 이번 개인전에서는 200호에서 1000호에 달하는 <사유적 공간> 대형 신작을 중심으로 초기작인 1970~80년대 <벽>, <일상>시리즈 등 회화와 드로잉 45점이 전시된다.

이석주 작가는 국내화단에 비정형의 추상회화가 주류를 이루던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대상을 사진처럼 정밀히 묘사하는 극사실 회화를 일관되게 지속해오고 있다. 미국의 1960~70년대 극사실주의 (하이퍼리얼리즘 Hyperrealism) 작가들이 소비사회의 풍요를 그리고자 했다면, 한국 극사실 회화의 대표 작가인 이석주는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일상성과 초현실성이 공존하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것이 특징이다. 그는 에어브러시와 붓을 이용해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대상을 그리면서도 내면의 사유, 서정적인 감성 등 주관적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내하고자 했다.

작가는 1970~80년대에 암울한 느낌의 <벽> 시리즈와, 군중 속 소외된 개인 시각에서 도시 풍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묘사한 <일상> 시리즈를 통해 소통이 부재하는 고독한 삶과 정체성을 상실한 현대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었다. 한편, 1980년대 후반 현실 속 오브제들을 파편화하고 재조합한 <일상>시리즈는 현대 도시의 일상과 극대화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선보인 <서정적 풍경>, <사유적 공간> 시리즈에서는 외부 대상을 관찰하던 작가의 시선이 내면의식으로 향하며 작품에 전환을 맞는다. 이석주의 그림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 '기차', '시계', '낮고 바랜 종이' 등은 모두 시간과 존재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드러내는 소재다. 자연물과 인공물은 한 화면에 병치되어 보는 이에게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데페이즈망 depaysement: '환치' 또는 '전치'). 이러한 대비 효과를 통해 작가는 일상과 상상,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고독, 허무 등 인간 내면의 풍경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번 아라리오갤러리 개인전에서 작가는 최근 4~5년 동안 작업한 200호~1000호 크기 <사유적 공간> 대형 회화 작품들을 대거 선보여 '존재와 시간'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진다. 신작에서도 '이석주'하면 떠오르는 말이나 시계, 낡은 책, 영화의 이미지들이 다시 등장한다. 이전에 시간성을 나타내던 말들은 오래된 책이나 활자 이미지들과 한 화면에 놓여 다양한 인간을 나타내는 소재로 등장하며, 크게 확대된 낡은 책이나 떨어져 나온 책 페이지들도 영화나 말 이미지를 연결해주면서 마치 새로운 시공간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전달한다. 이번 전시작들에는 특히 16~20세기 서구 고전 영화의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는데, 원본에 최대한 근접하게 복제된 영화의 부분 이미지들은 낯선 사물들과 함께 놓임으로써 초현실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나아가 인간존재에 대해 생각해 한다. 작가는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르메르의 <진주귀고리를 한 소녀>의 순수성, <우유 따르는 여자>속 일상적 삶의 모습, 앵그르의 <오달리스크>의 욕정과 세속성, 카라바지오의 <의심하는 도마> 에서 예수의 부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도마의 인간적 모습, 렘브란트의 고뇌가 엿보이는 인물과 라 투르의 희극적인 악사의 대비, 그리고 호퍼의 <밤의 사람들> 에 드러난 고독한 도시 분위기를 나 자신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일상적 인물들의 우수와 고뇌, 내면의 갈등을 표

현하고자 했다.” 고 밝혔다. 또한 “책, 시계, 말 등 현실적 이미지와 고전 명화 이미지들은 한 화면 속에 배치되어 시간성을 나타낸다. 이미지의 부분을 최대로 확대해 극사실적으로, 또는 흐리게 그린 이미지들은 또 다른 시공간에서 우리 존재를 사유해보고자 하는 시도” 라고 덧붙였다. 아라리오갤러리는 40여 년간 고집스럽게 극사실 회화 외길을 걸어오고 있는 이석주의 이번 개인전이 그의 작품 세계 뿐 아니라 그간 서구 중심 미술사에 가려져있던 한국 극사실 회화, 나아가 구상회화의 꾸준한 움직임과 활동을 조명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석주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1981년부터 2015년까지 그로리치 화랑, 미술회관, 성곡미술관 등에서 총 15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단체전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만국립미술관 전시를 비롯해 한국 현대미술 유럽 순회전 등에 참여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후쿠오카시립미술관, 성곡미술관, 호암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미국 스미스칼리지 뮤지엄 외 다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있다. 2017년까지 숙명여대 회화과 교수로 30여 년 재직했고, 현재는 동 대학교 명예교수를 지내고 있다.

[별첨 1] 전시 전경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사유적 공간》 전시전경 [3층]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사유적 공간》 전시전경 [3층]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사유적 공간》 전시전경 [4층]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사유적 공간》 전시전경 [4 층]

**[별첨 2] 작가 약력**

**이석주 (1952~ )**

현재 한국 거주 및 작업

현 숙명여대 미술대학 회화과 명예교수

**학력**

1981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197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18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 한국

2015 김재선갤러리, 부산, 한국

2013 갤러리 두인, 서울, 한국

2012 노화랑, 서울, 한국

2010 선화랑, 서울, 한국

2006 김재선갤러리, 부산, 한국

2005 박영덕 화랑, 서울, 한국

2001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선화랑, 서울 한국

1998 선화랑, 서울 한국

1993 선화랑, 서울 한국

1991 동송미술관, 서울 한국

동경아트엑스포, 동경, 일본

1987 미술회관, 서울 한국

1984 그로리치 화랑, 서울 한국

1981 다무라 화랑, 동경, 일본

**주요 단체전**

2015 RETRO '86-'88, 소마미술관, 서울

201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개관 특별전, 서울

2014 부산 비엔날레, 부산문화회관, 부산

2014 KIAF, COEX, 서울

2013 한국 현대 회화, 대만국립미술관, 대만

2013 아시아 국제 미술전시회, 아시아 각국

2011 극사실회화-눈을 속이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1 젊은 모색 3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0 한국 현대미술 유럽순회전, 유럽각국

2010 상하이 국제미술전, 상해, 중국

2010 극사실회화의 어제와 오늘, 성남아트센터, 경기

2009 서울 미술대전-한국 현대 구상회화의 흐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9 한국현대미술전, 모로코

2008 ART EXPO NEW YORK, 뉴욕, 미국  
2006 ARCO, 스페인  
2006 그리다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4 사실과 이면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3 실존과 허상,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02 사실과 환영-극사실회화의 세계, 호암갤러리 (삼성미술관), 서울  
2001 한국 현대미술 2001-회화의 복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수상

1991 제 8 회 선미술상  
1983-84 대한민국 미술대전 제 2 회, 3 회 특선  
1983 제 2 회 아시아 미술비엔날레 금상  
1981 제 30 회 국전 특선  
1978-1980 중앙미술대전 제 1 회, 2 회 특선, 제 3 회 장려상 수상

##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후쿠오카시립미술관, 성곡미술관, 모란미술관, 대유문화재단, 호암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미국 스미스칼리지 뮤지엄외 다수

## [이미지 다운로드 안내]

웹하드 <http://www.webhard.co.kr>

ID: arariogallery / PW: arario

내리기전용 → 2. ARARIO GALLERY\_Cheonan → 이석주\_사유적 공간

이미지 제공: 아라리오갤러리

## 문의

전시팀 | 강소정 팀장 M. 010-9256-1491

E. [sojung.kang@arariogallery.com](mailto:sojung.kang@arariogallery.com)

전시팀 | 정서윤 담당 M. 010-9080-3343

E. [seoyoon.jung@arariogallery.com](mailto:seoyoon.jung@arariogallery.com)